

사)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기획공연 · 남산국악당 공동기획

굿 보고 떠드 먹고



주최 · 주관
사)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보존회
서울남산국악당

후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국가유산진흥원
서울특별시
(주)컬처브릿지

제작지원
(주)예술숲

2026
사)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기획공연 ·
남산국악당 공동기획

굿도
보고
떡도
먹고

동해안
별신굿
보존회명단

명예보유자
김영희

전승교육사
김영숙 김동연
정연락 박범태 손정진

이수자
김정숙 김진환 홍효진
서한나 김영은 전지환
방지원 허무진 김종민

전수생

이란 유상희 이지훈
서희진 민경문 박민표
박혜빈 이필경 유지산

회원

오원석 윤현옥 김동민
류재영 강경훈 문지훈
남창동 홍성운 배민호
서은별 정재희

특별회원

김동열 김동언
박안지 박중환

2026.
07.11(토)
15:00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반갑습니다.

동해안별신굿 보존회장 김동연 입니다.

우리 동해안굿은 5대를 이어 내려온 김씨 일가의 손끝과 목소리
를 통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풍어를 기원하는 별신굿부터 망자의
넋을 기리는 오구굿까지,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신명 나는 가락과
춤사위에 담아냅니다.

전통의 틀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관객과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즉
흥적인 재담과 놀이는 동해안굿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화려한 지화 장엄 아래 펼쳐지는 역동적인 무대를 통해 우리 전
통 예술이 가진 강렬한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굿은 사람과 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
번 공연이 여러분 모두에게 태평성대와 부귀번영을 가져다주는
축제이자,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11.
(사)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보존회장 김동연

동해안 별신굿 보존회

(사)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보존회는 부산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동해안별신굿의 전통을 계승·보존하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은 198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오랜 세월 동해안 어촌 공동체의 삶과 신앙, 예술적 가치를 담아 전해져 왔다.

보존회는 동해안 지역의 여러 세습무계 가운데 부산 김씨 무계를 중심으로 전승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1대 故김천득 명인을 시작으로 故김성수, 故김호출, 故김석출, 故김재출 명인에 이르기까지 대를 거듭하며 전통을 지켜왔으며, 초대 예능보유자인 악사 故김석출과 무당 김유선을 비롯해 여러 세대의 세습무들이 동해안별신굿의 예술성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까지 전승해 오고 있다.

현재 보존회는 세습무 전통을 이어가는 전승자들과 전통예술을 전공한 학습무들이 함께 전수교육과 현장교육에 참여하며 동해안별신굿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전통의 원형을 존중하는 동시에 시대와 호흡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해안굿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동해안별신굿을 지켜온 세습무들의 삶과 전승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러 세대 전승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의 모습을 무대 위에 담아내고자 마련되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 공연이 동해안별신굿의 깊은 울림과 공동체적 가치를 관객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동해안 굿

굿은 민중의 삶과 문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급속하게 진척된 근대화·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생활 형태나 민속은 상당 부분 파괴되거나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급격한 문화변동의 와중에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민중의 현실 속에 뿌리내린 것도 있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동해안 굿’이다.

동해안 굿은 지역적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굿이다. 동해안 굿은 동해안에 상주하는 무당들이 동해안의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남쪽의 부산 다대포까지의 지리적 범위에서 행하는 모든 굿을 말한다. 동해안의 무당들은 해안을 따라 각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동해안 굿을 담당하는 세습무 집단은 동해안을 따라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여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속초·

강릉·삼척·울진·영덕·포항·울산·부산 등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며,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연고를 중심으로 하여 당골판을 확대한다.

동해안 굿에는 복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재수굿’과 치병을 위한 ‘광인굿’, 죽은 자의 극락 천도를 위한 ‘오구굿’·‘수망굿’·‘천도굿’, 마을공동 제의로서 ‘서낭굿’·‘별신굿’·‘풍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에도 동해안 굿은 지역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채 전승되고 있다. 동해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굿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별신굿

동해안별신굿은 동해안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굿이다. 마을사람의 안녕과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축제로 1985년 2월 1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마을 또는 어촌계에서는 부정이 없는 사람을 가려 제주 또는 제관을 선출한다. 굿을 행하는 시기는 마을마다 차이가 있으나, 동해안 큰무당이 주재하여 수년마다 며칠에 걸쳐 연행한다. 비록 규모·경비·주관 단체 등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신심만은 변함이 없다.

현재 동해안 경북, 강원도지역 별신굿은 대개 ‘부정굿→당맞이굿→청좌굿→화해굿→세존굿 →조상굿→성주굿→산신굿→군웅굿→심청굿→천왕굿→지신굿→용왕굿→손님굿→제면굿→대내림→꽃노래→뱃노래→등노래→거리굿’의 형태로 진행된다. 같은 동해안 별신굿이라도 굿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굿의 규모, 당주무의 차이, 지역의 정체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동해안별신굿은 무악과 무가가 세련되고, 다양한 춤과 익살스러운 재담이 많아 다른 지역 굿보다 놀이적 성격이 강하다. 굿당에는 탑등·허개등·용선·지화 등 장식이 화려하고, 주로 무녀는 쾌자를 입고 연행한다. 반주에 사용하는 악기는 장구·징·꽹과리 등의 타악기이다.

동해안별신굿은 지역민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여전히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동해안 사람들은 굿을 통해 신앙적·종교적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예술적·놀이적 욕구를 희구하고 있다.

오구굿

오구굿은 망자의 영혼을 위한 굿이다. 망자가 살았을 때 가졌던 욕구불만을 풀어주고 몸에 베인 과오와 죄업 등을 씻어서 순수의 상태로 영원한 안식처에 정착하도록 인도하는 한편, 유가족의 모든 근심과 재앙을 소멸시켜 길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안에서는 오구굿을 '오구자리'라고 하거나 별신굿과는 달리 밤을 새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저'라고도 한다. 바다 일을 통해 빚어진 해상사고나 미혼 또는 젊어서 지병이나 자살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오구굿을 했다. 굿하는 날을 받으면 무당들은 굿에 쓸 지화, 용선, 탑등과 기타 장식으로 사용할 소품들을 준비하고 나서 전날 또는 굿이 시작되는 날에 굿당을 장식한다. 이렇게 하여 굿을 할 준비가 끝나면 늦은 오후나 저녁부터 굿을 시작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굿을 마친다. 현재 동해안 경북, 강원도지역의 오구굿의 절차는 대개 '망자 배석만들기→부정굿→골매기굿→문굿→문답설법→(오는)뱃노래→조상굿→초망자굿→늦동우굿→발원굿→

시무염불→관염불→꽃노래→(가는)뱃노래→등노래→길가름→정정밧이→소진→시석'의 형태로 진행된다. 동해안 오구굿은 굿거리가 일치하게 나타난다.

오구굿의 굿당은 전면에 제물과 지화 등을 차려놓은 제단을 두고 제단 뒤에는 병풍을 둘러쳐서 가린다. 제단의 양쪽 옆에는 열대왕, 칠여래, 오방불, 지옥단, 오색초룻, 지전등을 걸어놓고 오른쪽에 용선, 왼쪽에 탑등을 매단다. 굿당의 바깥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붉은 대나무에 허개등을 높이 달고, 좌우의 기둥에는 길이가 4~5m 정도 되는 대나무로 만든 골매기대(서낭대)와 인로왕대(천왕대)가 세워져 있다.

오구굿은 일반적으로 망자의 집에서 하나 망자의 집이 작을 경우, 가까운 근처 해변에서 지내기도 한다. 망자의 집에서는 안방에 조상상을 차리고 그 위에 망자의 위패와 부모님의 위패를 함께 모셔 놓는다. 동해안의 오구굿 역시 별신굿과 마찬가지로 세습무가 담당하는데 경북에서는 주로 송씨 일가가, 강원·경남에서는 김씨 일가에서 주로 맡는다. 마을굿인 별신굿에 비해 오구굿은 집안굿이지만, 친인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참석해서 도와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밤을 새운다.

굿도 보고 떡도 먹고

1. 문굿

굿청을 열고 굿의 시작을
의미하는 굿거리

2. 부정굿

굿당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씻어내는 굿거리

3. 골매기굿

마을 수호신 골매기 성황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굿.
이수자들의 분창과 합창으로
동해안굿의 생동감과 장중한
공동체적 울림을 구현한 작품이다.

4. 세존굿

당금애기 설화를 바탕으로
자손의 출산 및 수명과 재복을
관장하는 세존신을 위한 굿거리

5. 천왕굿

천왕신에게 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굿거리

6. 성주굿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신을 모시고
가정의 평안을 비는 굿거리

7. 무속사물

오구굿 중 초망자굿에서 연주하는
드렁갱이 장단을 타악합주로 재구성

8. 동해 무무

삼오동 · 바라 · 땡기 무무를
차세대 무집단의 역동적인 군무로 재구성한 작품

9. 뱃노래

모시고 청한 신들을 극락세계로
다시 환송하여 보내드리는 굿거리

주요 스텝진

(주)컬처브릿지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
대표이사 **김나영**
사업부분총괄
(돈화문국악당 실장겸직) **김영신**
남산국악당 실장 **김성량**

공연사업팀
담당PD **이혜인**
팀원 **이지은 이혜인 모인경 권세라**

콘텐츠사업팀
팀장 **김수임**
팀원 **서로사 김수연 이도요 양지형**

무대기술팀
팀장 **안준형**
과장(무대) **손지영**
무대 **이세영**
조명 **이성현 박정은**
음향 **김승왕 강한결**

경영기획팀
팀장 **김효진**
팀원 **차경아 이호재 김서연 박지민**

제작지원 (주)예술숲
대표이사 **김면지**
기획경영실장 **박탄**
사업운영실장 **정재훈**
무대감독 **김동훈**
음향감독 **정귀영**
조명감독 **김군석**
운영지원
이태민 김정식 송희근 서예진

총괄 **정연락**
연출 **손정진**
예술감독 **박범태**
홍보디자인 **노승환**



출연자 소개

전승 교육사



김영숙



김동연



정연락



박범태



손정진

특별 회원



김동열



김동언



박안지

이수자



김정숙



김진환



홍효진



김영은



전지환



방지원

전수생



이란



유상희



이지훈



서희진



민경문



박민표



박혜빈



이필경



유지산

회원

오원석 윤현옥 김동민 류재영 강경훈 문지훈 남창동 배민호 서은별

굿 보고 짜 기 백 고

사)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기획공연 · 남산국악당 공동기획